



東國大同會報

발행인 : 문선배 | 편집인 : 이계홍 |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526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4년 (불기 2568년) 11월 1일 (금)

<http://dongguk.or.kr>

제269호

총동창회 ‘충무로 시대’ 활짝 열었다!

10월 17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동창회관 개관식 가져



▲ 개관식 행사에는 문선배 총동창회장,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총장 등과 함께 총동창회 역대 회장을 비롯해 단위 동창회 회장 등 동문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모교와 상생 · 동문간 소통 강화 ... 동문사회 “목은 숙제 해결했다” 동국대 이사장 · 총장 · 역대 총동창회장 · 지구별 동창회장 등 동문 200여명 참석

동국대 총동창회 충무로 시대가 열렸다. 총동창회(회장 문선배)는 17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총동창회관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문선배 총동창회장을 비롯 돈관 학교법인 이사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홍파 동국장학회 이사장, 법타 · 혜담 스님, 송석구 · 윤성이 前총장, 원용선 · 전순표 · 이재형 · 전영화 · 정환민 · 박대신 前총동창회장 및 간부들과 지구별 동창회장, 직능별 동창회장, 조희영 前교수, 이병선 속초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관 테이프를 끊고 자리를 이동해 5층 동창회 회의실에서 자축연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총동창회는 32년의 인사동 시절을 마감하고 충무로 시대를 새롭게 열면서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3·4호선 충무로역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모교와의 근접성, 회의실과 친교실 등 각종 여유있는 사무실

공간을 갖춰 동문 사회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자축연에서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35만 동문의 영혼이 담긴 동창회관을 이전해 개관식을 갖는데 대해 벅찬 감격을 가눌 수 없다”면서 “오늘을 있게 한 홍파 · 법타 스님께 감사하고, 돈관 이사장과 윤재웅 총장의 지원에 감사한다. 동창회관을 이전한 것을 계기로 모교와 총동창회간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문 구성원간의 대통합으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재단이사장 돈관 스님은 “총동창회관 이전은 동국대 118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큰 결심이다. 충무로 시대를 열기까지 대덕 스님들의 조언이 있었다”면서 “동국대가 지난 9월 장충체육관에서 2,500명의 대학생불자를 탄생시킨 것을 비롯해 불교증흥과 동국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는데, 총동창회가 회관 이전을 계기로 불교증흥과 동국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웅 모교 총장은 “총동창회관 이전의 숙원이 해결돼 명치 끝에 걸린 체증이 가신 것 같다. 충무로 동창회관은 모교-재단-총동창회 삼위일체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후년 건학 120주년을 맞는 모교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동문사회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빌딩으로 영상센터 및 불교학술원, 산학협력업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총동창회관은 5층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자축연에서 총동창회 사무국은 모든 참석자에게 개관 기념 타올과 기념떡을 선물로 제공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총동창회 이전 주소 안내 : (04626)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길 2,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526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총무로 동창회관 시대’ 열기까지

동창회관 개관 의미와 향후 과제

총동창회 ‘총무로 시대’를 연 것은 학교법인과 모교, 총동창회가 2007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동창회관 이전 문제로 법인과 모교, 총동창회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문선배 회장과 실무 책임을 맡은 임선기 사무총장이 법인과 모교 사이에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해결되었다. 여기에는 흥파 스님과 법타 스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해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대의의 측면에서 포용의 정신에 따라 동창회관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동창회관은 모교 캠퍼스내에 ‘로터스관’이 신축되면 일정 공간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07년 기본합의서 내용의 골자는 학교 시설에 동창회관이 들어서고,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동창회는 모교 전신인 명진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졸업생으로 조직된 광학회가 시발이다. 1918년 졸업생으로 구성된 일심회를 시작으로 교우회-일광회-동창회로 명칭을 바꿔가며 교내에 사무실을 두어 동국 100년의 역사와 함께 명맥을 이어왔다. 동창회는 6.25 전란 중에도 백성욱 박사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모교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5, 6대 총동창회장으로 다시 추대되면서 동창회 기반을 다졌다. 이때 모교를 벗어나 1966년 서울 서소문동 한국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차세대로 확장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맞았다.

총동창회 재건은 1971년 최재구 7대



회장이 선출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종로 3가 고영빌딩에 있던 사무실을 모교 교수회관으로 옮긴 뒤, 1972년 제1회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동창회보 창간, 동국인명록을 발간하는 등 체제를 갖춰 나갔다.

확장기로 접어든 시기는 1986년 정재철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이때 처음 독자적인 동창회관 건립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동창회 사무국을 모교 학생회관에서 총무로 대기빌딩으로 이전하고, 관훈동 성화빌딩을 거쳐 1992년 관훈동 백상빌딩 302호를 매입해 ‘인사동 동창회관 시대’를 열었다. 백상빌딩은 행정 지원으로는 관훈동이지만, 인사동권으로 널리 인식돼 ‘인사동 동창회관’으로 부른다.

인사동 사무실을 기반으로 21대 류주형 회장은 취임과 함께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창회관 부지 확보

를 위한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원용선 23대 회장 또한 모금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창회관 건립은 구체화 되었다. 이후 전순표 24대 회장은 2007년 학교법인, 대학, 총동창회 3자간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송석환 25대 회장은 모교가 2014년 장충동 로터리에 인접한 학교 정문에 제2 건학의 랜드마크가 될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2007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동창회관이 일정 공간에 입주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건학 108기념관은 ‘로터스관’으로 명명돼 남산공원 구역 해제와 시설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서울시 인가를 받아 모교 정문에 대대적으로 건립하기로 한 건물이다. 2018년 전영화 26대 회장이 로터스관 기공식에 참여해 첫 삽을 떴으나 모든 구성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로터스관 건설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 취임한 28대 박대신 회장은 로터스관 진행과 상관없이 총동창회관을 총무로영상센터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였고, 문선배 30대 회장이 학교법인과 모교간 동반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마침내 이번 총무로영상센터 이전을 마무리했다.

총동창회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이미지를 구축한 ‘총무로 동창회관’ 시대를 열기 위해 동문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를 위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변화와 혁신의 액션플랜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다.

▶ 동문들이 자유롭게 동창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으로 동문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 소통 공감으로 참여하는 동창회 분위기와 함께 재정수입 확대 모델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충 기반 조성

▶ 중심세대 역할을 정립하고 활동력 있는 동문들을 발굴하여 미래 성장 동력 양성

▶ 모교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으로 모교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김찬욱 (산업공학83, 총동창회 사무국장)

‘후원의 밤’ 약정 기부금 1억원 전달



▲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8월29일 모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지난 6월21일 개최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행사에서 약정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문 회장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3억 3,000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전

달했으며 또 “총동창회장으로서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35만 동문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기부소감을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총동창회의 끊임없는 모교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동문들이 염원하시는 바와 같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화답했다.

한편, 문 회장의 솔선수범으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행사에서 총동창회 명으로 약정한 10억원도 단위 동창회와 동문들의 참여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소통 공감으로 화합한 골프대회



총동창회는 8월27일(화) 양평TPC GC에서 열린 제10회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산, 대구, 경주동창회를 비롯해 대학원, 학과, 학번, 미래융합교육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 동창회가 참가해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통 공감으로 화합했다.

특히, 여자총동창회 팀으로 출전한 이미자(영문83) 동문은 홀인원을, 김태현

(불교84) 동문은 이글을 기록해 참가한 동문들에게 좋은 기운을 선사하며 박수를 받았다.

▲단체우승=84학번 동기회 ▲단체준우승=82학번 동기회 ▲개인우승=이상민(농경82) ▲개인준우승=현영재(산공91) ▲메달리스트=김정호(전산79) 70타 ▲롱기스트(남)=이건열(경행82) ▲롱기스트(여)=심유곡(미용원17) ▲니어리스트=김태우(경영84)

“총동창회 사무실은 동문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교통 접근성, 모교와의 유대 강화, 동문 참여의 길 넓혀

지난 10월 17일 모교 총무로영상센터 5층으로 이전해 개관한 동창회관은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다. 3·4호선 총무로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눈앞에 총무로영상센터가 보인다. 1층 홀리스 커피숍을 돌아 주차장 입구로 올라가면 왼쪽 건물 입구에 ‘동국대 총동창회관’ 간판이 나타난다. 이곳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총동창회 사무국이 자리하고 있다.

동창회관은 86평의 점유 면적(전용면적 53평)에 독립형 사무실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에는 ▲명예의 전당 ▲회의실 ▲동문 라운지 ▲사무국이 들어 있다. ▲명예의 전당은 한 면에 초대 동창회장을 지낸 만해 한용운 선사를 비롯해 최재구·문태식·전순표·정상영·송석환 회장의 ‘자랑스러운 동국인’ 흉상이 세워져 있고, 흉상 아래 단에 약력이 소개된 명패가 부착되어 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위상과 권위 및 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물들 흉상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명예의 전당 또다른 벽면 전체엔 총동창회 회관 건립기금 기부자 명단과 모교 장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명예의 전당에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단위 동창회장들이 동문 면담은 물론 외부 손님과의 회동을 위해 회의실용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해 놓고 있다.

동문 참여 위한 회의실 등 제공



▲회의실은 모든 동문들이 언제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음료와 다과를 갖춰놓고 있다. 좌석은 30인석으로 꾸며 놓고 있으며, 참석 인원수에 따라 좌석 배치를 증감할 수 있다. 동창회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의 등 동창회 주요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회의와 세미나, 포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학년별, 학과별, 직능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소모임은 8인석의 동문라운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쾌적한 공간에 각 실이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자랑할만하다.

▲동문라운지는 8인석의 좌석을 꾸며 놓고 있으며, 참석 수에 따라 좌석을 증감할 수 있다. 친목 모임 등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작은 세미나를 가질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비롯해 실무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국은 회장단과 상임위원회, 동국장

학회 업무를 수행하고, 지구별 동창회, 학과별 동창회, 학년별 동창회, 직능별 동창회 등 조직 관리를 한다. 이밖에 회원관리 및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교와의 횡적 연대 강화

총무로 동창회관 시대는 대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인사동 시절엔 건물 외벽에 동창회관 간판이 붙지 않아 동문들이 찾아가는 데 불편을 주었지만, 총무로영상센터 건물 외벽에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간판이 부착돼 총동창회 랜드마크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총무로 사거리에서 환히 보이는 간판은 동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와 함께 총동창회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동창회관은 모교와의 상생 관계를 위한 횡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로영상센터에는 불교학술원, 창업원 등 모교 산하 기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과 함께 모교의 일원이라는 유대감과 가까운 모교 캠퍼스를 수시로 드나들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공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모교와 동창회 구성원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과·학년·직능별 동문 모임

총무로 동창회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살려 모든 동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여 동문간의 친선과 소통, 유대 관계를 긴밀하게 맺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모임을 동창회관에서 가질 수 있다. 학과별, 학년별, 지역 지부별, 취미 동아리별, 학술연구팀별 등 다양한 모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회의실 및 동문라운지 이용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있다. 이용 문의는 전화 02-733-0303번으로 사무국 김찬욱 국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동문들이 직접 동창회관을 방문 상담해도 된다. 어쨌든 총동창회 총무로 시대는 35만 동문의 실질적인 소통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총무로영상센터 동창회관 개관식 이모저모

▶ 이날 개관식에는 원용선, 전순표, 전영화, 박대신 등 역대 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송석환 전 동창회장은 15일 미리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찬과 함께 이전 축하금을 전달했다. 개관식에는 모교 송석구·윤성이 전 총장, 조희영 전 교수와 자문위원 이경석, 정중식, 최대식 동문, 지도위원 이재형, 박영호, 정환민, 신관호 동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임부회장단으로는 김종필, 박태선, 윤병관, 윤미정, 김미행, 김태현, 차연신, 조완제 동문 등의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병선 속초시장도 참석해 동문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부·지회장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부산의 이육태, 대구경북의 손기범, 광주전남의 장근일, 제주의 정한중 지부 회장 등이다.

모교 측에서는 최응렬 교무부총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등이 참석했다.

▶ 개관식 테이프 커팅과 자축연 진행은 김종필 상임부회장(82행정학과·내일신문 이사)이 맡았는데, 덕담과 유머를 동

원해 깔끔하게 진행하여 명사회자라는 칭찬을 받았다. 김종필 동문은 공영대(78화학과), 윤병관(82화공과) 상임부회장들과 함께 회의실에 86인치 대형 TV를 기증해 시청각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도움을 줬다.

▶ 동국 라운지에서 가진 자축연에는 축하사와 격려사, 축배의 말이 이어졌다. 돈관 이사장, 윤재웅 총장의 축사에 이어 홍파 스님이 축하떡 커팅 후 가진 덕담에서 “동국발전! 불교증흥!”을 외치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전순표 24대 동창회장은 “2007년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뒤늦게나마 후속 조치가 일어난데 감격스럽고, 회관 이전 실무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친교 시간에 계태사 주지 혜담스님(불교대학원 동문회장)은 발전기금을 문선배 동창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금은 두툼한 봉투에 담겨져 전달됐는데 사회를 맡은 김종필 동문은

“발전기금이 1,000억원은 안된 것 같다고 유쾌한 덕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종표 행정대학원 동문회장과 한상인(69도시공학과) 지도위원 등은 동문 라운지 가구를 설치하는데 찬조했다.

▶ 동창회를 이끌어온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형(64불교·전총학생회장) 동문은 “35만 염원이 담긴 개관식”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총동창회관 건립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서 “동문 구성원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창회로 이끌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금용 동국문학회장(74국문과)은 “근래 총동창회와 동국문학회가 밀접한 소통관계를 유지해왔고, 전통 명문 국문학과 출신들이 각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을 동창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며 다만 동창회와 문학회에 국문과 출신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특허를 담당하고 있다는 김태현(84불교과) 동문은 “상임부회장 8년을 하고 있다”면서 동창회관 이전이 제2의 도약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동창회관 개관을 축하하는 화환도 많았다. 사무국은 사전에 쌀화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 쌀 220Kg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쌀 나눔에 기부함으로써 행사를 뜻깊게 했다.

동창회관 개관식 축하환 현황

△학교법인 이사장 △동국대학교 총장 △와이즈캠퍼스 총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직할경주 동창회 △부산지부 동창회 △대구경북지부 동창회 △광주지부 동문일동 △전북지부 동문회 △4.19혁명동지회 △불교학과 동문회 △인도철학과 총동문회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불교대학원 총동문회 △사회과학대학원 동문회 △APP총동문회 △동국문학인회 △동국동문합창단 △서초강남지회 △85학번 동창회 △86학번 산공모임 동문 △경영대학원 안영찬 교수 △민평통 자문위원 박상남 △박영순 부회장 △포항 원법사 주지스님 △여자총동창회 (냉장고 기증)

김찬욱 (산업공학83, 총동창회 사무국장)

“대승보살로서 만해정신 재조명”

제9회 만해평화문학축전 ‘만해와 대승불교’



는 민족의 지도자 이시고, 한국 불교계의 거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온갖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살아오신 큰스님”이라고 추모했다.

문선배 총동창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은 8월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와 대승불교’라는 주제로 제9회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만해 탄신 145주년을 기리는 다례제와 기념식에 이어 ‘만해사상 학술세미나’와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 등으로 진행됐다.

축전 준비위원장인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올해 만해평화문학축전의 주제는 ‘만해와 대승불교’라며 “대승이란 모든 생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만해사상실천연합 이사장 홍파스님은 대회 법문을 통해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고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만해 선사의 말씀을 되새기고, “만해선사

회장은 심우장에서 만해 탄신을 기념하는 평화문학축전을 여는 것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마음일 것”이라며 “모든 생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승보살로서 만해정신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했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은 故선진규(불교 55) 법사 발의로 2015년 6월 26일 만해스님의 주석처였던 성북동 심우장에서 창립된 이래 2022년 4월28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만해 탄신일 기념 만해평화문학축전 △심우장 성역화 및 확장 지원 사업 △만해사상과 문학의 연구사업 △만해사상의 국민교육 사업 △남북문인간 통일문학 교류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교 대중 속으로 더 가까이”

‘2024 세계일화 국제불교 영화제’ 성료



상영작 선정 기준을 밝혔다.

개막식은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뮤지컬 싯다르타 갈라쇼, 배우 강석우(연영77)의 성악 클래식, 뮤지컬 배우 민경아, 뉴진스님 공연 등 다양한 무

모교 영상대학원(원장 정달영)이 주관한 ‘2024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9월9일 본관 중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이 올라 성료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영화제는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1,730편의 영화가 출품된 가운데 23개국 장편 10편, 단편 23편이 사흘간 무료로 상영됐다.

최진수(연영78) 집행위원장은 “불교 영화를 중심으로 불자 감독과 주인공이 나온 영화도 범불교 영화로 소개했다”며

대를 펼치며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화배우 이덕화(연영70)가 고문으로, 영화제작자이자 코미디언 이경규(연영79)도 홍보대사로 참여해 영화제에 힘을 실었다.

영화를 통한 전법과 포교를 위해 기획된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이 진일보하고 관람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대중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국대 상생발전 창업 생태계 조성”

‘2024 동국 창업포럼’이 9월24일 엠배서더 호텔 레거시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동문과 기업 및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비창업 기업과 신사업 아이디어 확보가 필요한 기업 간 매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인사와 임각균(공경82) 이트너스 대표, 김상배(물리85) 메타리치 대표, 조성원(경제92) 조이시티 대표, 송민표(컴공12) 코엑터스 대표를 비롯한 우수 동문 기업, 창업지원 수혜기업, AC 및 VC 관계자 등 50여 명이 새로운 창업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동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 ▲

창업 아이템 발표 ▲동문 기업가의 ‘D-Heritage 멘토’ 위촉 등으로 구성됐다.

‘D-Heritage 멘토’는 노하우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문을 멘토로 위촉해 창업지원 수혜 기업에게 멘토링, 교육,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동국대만의 상생발전 창업 모델로 거듭날 예정이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 창업포럼이 창업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투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동문의 지원을 통해 동국대만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잠재력 있는 우수한 창업자가 유입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꾸려지길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싯다르타와 함께 붓다의 세계로’



불교학생회 동문들로 구성된 동불 108합창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8월24일 모교 중강당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다.

‘싯다르타와 함께 붓다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석가모니의 탄생과 출가, 수행과 깨달음, 열반과 귀의하는 마음 등 3막으로 구성해 각 노래가 끝날 때마다 나레이션으로 가사에 담긴 의미를 해설해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동불 108합창단은 2019년,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동문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TWOHIM

pocket TB-03
초소형 골프 거리 측정기

evo TB-05
삼각측정기능

Mini OLED TB-07
2컬러 OLED 뷰파인더

www.twohim.com 동문 선물용 할인판매 | 031-309-0878 투힘 거리측정기 | 검색

취업 정보와 진로 탐색 '취업박람회'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 대거 참여



진로 및 취업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검사, 면접 이미지 메이킹과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팅 및 부대행사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123개 기업이 참가한 '2024 JOB & CAREER FESTIVAL'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캠퍼스 일대에서 3일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세스코, 심팩, 이트너스, 조이시티 등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해 채용상담과 후배 멘토링에 나섰다.

행사는 ▲동문 현직자와 직무상담이 가능한 '동문 멘토링관' ▲인사담당자와 1대 1로 상담이 가능한 '채용상담관' ▲

이외에도 학과별 멘토링데이, 온라인 동문 취업·직무 멘토링, 메타버스 취업 박람회 및 공채대비 실전 모의면접 등이 이어졌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현대사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미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동국대는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4년 취업박람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하며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는 성공적인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 '동국 와이즈'

WISE캠퍼스 후원의 밤 48억 5천여만원 모금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48억5천여 만원을

WISE캠퍼스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을 위한 '2024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30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후원의밤 행사에는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 WISE캠퍼스 류완하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

을 약정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영상 치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해왔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동국 발전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태풍의 눈처럼 커질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권선하는 축사를 했다.

"모교 출신이라는 자부심 늘 가져주길"



상황 속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이 자리에 당당히 서게 됐다"며 "수많은 동문 선배

서울캠퍼스 가을학위수여식이 8월22일 거행됐다. 학위수여 인원은 박사 102명, 석사 682명, 학사 1,051명 등 총 1,835명이다.

와이즈캠퍼스 학위수여식은 다음날인 8월23일 열려 학사 224명, 석사 58명, 박사 8명 등 총 290명이 학위를 받았다.

윤재웅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그분들의 발걸음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앞날 또한 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길 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고, 개교 118주년의 역사와 35만 동문을 가진 동국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 WISE캠퍼스 취·창업 박람회



참여했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U.C.Dongguk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일진베어링, (주)광진상공, (주)다스 등 지역 우수기업을 비롯한 총 44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했다.

또, (주)호텔롯데 시그니엘 부산, 파크하얏트 부산, 제주신화월드, 아코르엠베서더, (주)하우스오브초이에서 진행되는 기업, 채용설명회와 우수 중소기업 진로 가이드 특강, 외국계 기업 성공 취업전략특강도 마련됐다.

WISE캠퍼스는 10월 7~8일 양일간 문무관에서 '2024 WISE Dongguk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0여명의 재학생이



도심을 벗어나 아늑한 자연 속에 자리잡은 삼구인화원은

다양한 연수 시설과 편안한 휴게 공간을 갖춘 종합 연수원입니다

ISO 9001 : ISO 45001

토공,철콘, 상하수도, 포장, 비계, 습식방수, 보링그라우팅

Since 1992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자기업(주)

원칙과 정도에 맞는 기술자의 양심으로
성실시공을 약속합니다.



회 장 조석규 (토목공학과)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F (양재동, 호성B/D)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대자기업(주)

www.wdston.com



세계명석 경주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 동 식



SINCE 1972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 054) 777-0404, 776-9500~3 FAX. 054)776-9504

E-mail. od0404@hanmail.net 웹하드 ID.wdston pw.7770404

KS표시 인증, 가스주입 단열 복층유리 단체표준 인증

LX하우시스 KCC e·MAX Club

차원이 다른 명품 고기능성 복층유리

소프트 로이 복층유리 | 아르곤 가스주입 복층유리 | 삼중 로이유리

작은 변화 하나로 국내 판유리 업계를 선도하다

단열성능 · 생산성 향상!
결로현상 · 가스누출 최소화!
생산 공정 완전 자동화로 일정한 고품질의 제품 생산!

그린복층유리 최초 개발자 (주)삼호글라스 조용국 회장



품질우선 경영 후대를 위한 초석



▼ 판유리 CNC 절단 및 서클 이동시스템



▼ TPS 단열간봉 자동부착 로봇



SHG 주식 회사 삼호글라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진로 191-45
Tel. 031) 542-1888 / Fax. 031) 542-1887

회장 조용국 (불교대학원 CEO과정 8기) Mobile. 010.5248.1534
그린 복층유리 최초개발자 /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문회 산악회장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이
동국대학교 동문 및 가족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 02-3445-2557)



특별한 소수를 위한
No.1 노블결혼정보 엔노블
대표상담 1577-2050

-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2개 명문대 총동창회 단독제휴
- 현직 변호사가 검증하는 회원 숫자 투명공개(24.08 기준)
 - SKY대 출신 3,265명
 - 의료·법조 등 전문직 3,359명
 - 100억 이상 자산가 1,002명
 - 로얄&VVIP 정재계 명문가 267명
- 18년 전통과 역사! "성혼주의 서비스" 업계 최초 시행(2007~)

N.NOBLE
MATCH-MAKING BIBLE

등록번호
서울-강남-국내
15-0005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제주 / LA / 뉴저지 / 아틀란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 (신사동, 엔노블타워) www.nnoble.co.kr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다”

모교 재학생 2,500명 수계의식 봉행 ... 와이즈 캠퍼스에서도 1,500명 참가하는 영캠프 개최
청년 전법 씨앗 싹 틔워 ... “청년불자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돈관 스님은 분초를 다들만큼 바쁘다. 모교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불교 중흥과 동국 발전이 맞물려 있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모교가 활기차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모교에 입학한 그는 뱃속까지 “동국대학교가 발전해야 불교가 중흥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돈관 이사장 자리 앞의 탁자에는 사발만한 큰 두꺼비상 두 마리가 앉아 있다. 두꺼비는 발이 세 개다.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세 발 두꺼비는 큰 행운이 온다는 불가 속설을 지니고 있다. 3이라는 숫자가 영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스님은 “재단-모교-총동창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교 발전을 도모하자”고 덕담을 했다.

직접 뛰는 모교 발전 ‘홍보대사’

인터뷰 일정이 여러차례 미뤄진 가운데 총동창회관 이전 개관식을 갖는 자리에서 임선기 사무총장이 간신히 일정을 뺏아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분의 인터뷰 시간을 할애받았다. 어려운 가운데 가진 인터뷰였지만 시간을 초과한 50분 내내 그는 모교의 ‘홍보대사’ 처럼 불교와 모교를 아우르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사실은 인터뷰를 안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모 방송에서 대담을 할 때, 발언이 잘못 나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터뷰 트라우마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경계없이 그는 모교 발전과 불교 중흥에 관해 열변을 토했다.

돈관 이사장은 ‘불교 생활화와 대중화’를 지적하면서 ‘뉴진 스님’을 ‘호출’했다. 뉴진 스님은 개그맨 윤성호를 말한다. 그와 함께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에 헌신한 김법린 前 동국대 총장 얘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4대문 안에 동국대학교가 우뚝 선 것은 김법린(불교 중앙학림) 총장 역할이 큼니다. 불교 개혁과 대중화에 생애를 바친 분으로 저는 은혜사 주지 시절 그분의 활동상을 보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선각자가 계시다는 것을 재학생들이 이제부터라도 잘 알았으면 합니다”

김법린 前 총장의 불교 생활화 전승

1962년 모교 총장을 지낸 김법린 동문은 문교부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장, 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시절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고, 동국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우리 대학에는 이런 민족적 인물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분의 불교 대중화운동을 적극 펴야 할 때입니다”

돈관 이사장은 대중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2,500명의 대학생 예비 불자가 참석한 가



운데 대규모 영캠프 수계의식을 봉행했다.

“영캠프는 동국대 118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대역사(大役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반한 자승 대종사의 대학생·청년불자 양성 유지를 실천한 것이지만, 이처럼 크게 결실을 맺은 것은 기적같은 일이지요. 그동안 동국대 불교학생회 회원이 80명 수준이고, 법회에 나온 학생이 40~50명이었지요. 18,000명 재학생(대학원 4,000명 포함) 중 80명밖에 안되다니, 유일의 최고 불교종합학교가 이런 상황인가 하여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2건학 내건 두가지 슬로건

돈관 이사장은 제2건학 이념을 내건 두가지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취업 걱정없는 대학으로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법의 허리는 청년이며, 주체는 모교 재학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머리와 다리가 없어졌으니 허리 부분을 맡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불교가 중흥하고, 모교가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승 스님의 열반으로 돈관 이사장이 그 임무를 부여 받았다.

“책임을 맡아보니 불교세가 강하다는 영남의 불교학 생회마저 이미 해체되었고, 이기영 박사나 김법린 총장이 목청껏 외친 생활불교, 대중불교도 사라졌습니다. 사찰에는 여자만 있고, 남자는 안보입니다. 의료복지의 일환으로 세워진 동국대 불교병원이 일산과 경주에만 있어서, 타종교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그는 불교의 허리가 살아야 아래 위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불교 영캠프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동국대 청년 불자들의 축제 ‘영캠프’에서 2,500명 학생

불자들이 일시에 수계를 받았는데 그 모습은 일대 장관이었다고 전해진다. 건학위원회 전 고문 자승 대종사의 원력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돈관 이사장의 발품으로 얻어진 결실이다.

대학생 불자 사찰순례, 단기출가 등 진행

“청년불자이자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인재로서 불교의 가치관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성장해 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교동아리 구성원 모두 불교의 미래이자 동국의 빛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서울캠퍼스 14개 단과대에서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학부를 넘어 대학원 불교모임까지 출범시켰다. 참여자에게는 모두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단기출가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회향에도 앞장선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자 “원력에 힘을 쏟는 분들의 노고와 인연 공덕”이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동국인’ 사회와 나라와 모교의 주인공

한편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재학생 166명이 지난 9월 11일 모교 정각원에서 불교동아리 ‘부르나’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불법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계기로 오는 11월 12일 와이즈 캠퍼스에서 1,500명의 대학생 불자가 참여하는 영캠프를 갖게 된다.

“불교의 주인공, 동국의 주인공을 만드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나라의 주인공, 사회의 주인공, 불교의 주인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돈관 이사장의 다짐이자 약속이다. 그러면서 “전엔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외면하고 가기가 일쑤인데, 지금은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는 학생이 생길 정도”라고 뿌듯해했다.

끝으로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묻자 “문선배 총동창회장이 물꼬를 터서 ‘동창회 총무로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격려하면서 총동창회가 활성화되고, 동문사회와 모교가 하나가 되어 모교 발전, 불교 중흥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돈관 이사장 스님은 해인사에서 은사이신 일타 스님의 문하에서 사미계를 받았고,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및 건학위원장, 동국대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우리가 주인공” ... 불제자 선언

수계의식서 문화공연까지 청년불자 축제



이사장 돈관스님을 전 계대화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감사스님과 불교대학 교·강사,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이 계사로 동참해 참다운 불제자의 삶을 발원한 청년들을 응원했다. 특히 수계식은 연비를

청년 불자들의 축제인 ‘영캠프’가 9월 24일 2,500여 모교 재학생 불자들이 일시에 수계를 받는 장관을 연출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2,500여 청년불자와 500여 교직원들의 장엄한 참회진언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수계의식이 봉행됐다.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동참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참된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다시 태어난 저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다”며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고, 청정한 생활 속에 기쁨을 나누며, 올바른 말과 밝고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생애를 바꾸어 가면서, 온 국토 일체 중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장엄할 것”을 발원했다.

를 대신해 단주를 전달하고, 한국음악과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부처님 이미지로 메인 무대를 장엄하는 등 전통 기반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눈길을 끌었다.

영캠프는 모교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 위원단이 직접 기획한 행사로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뮤지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수계법회 후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1부에서는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무대와 불교교리를 이디엠(EDM)으로 편곡해 ‘힙한 불교, 젊은 불교’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뉴진스님’의 디제잉 공연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걸그룹 ‘트리플 S’, 가수 ‘케이월’,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를 장식해 청년 불자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증서 수여식’

불자 학생 637명 총 6억3천7백만원 지급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스님)는 10월 23일 ‘제8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지역 사회 공헌과 미래 불자 육성을 위해 각 지역 사찰과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제도다.

이날 수여식은 지역 불자 양성과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캠프 수계법회 등 교내의 불교 실행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에서 “언제 어디든,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마음으로 ‘주인공’이라는 낱말을 학생들에게 불어드렸다”며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춰 동국의 주인, 사회의 주인 나아가 세상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각 단과대학과 학점은행계 듀이카의 불

교동아리에서 선정한 장학생 대표 1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템플스테이 체험권 1,000매를 선물했다.

또 “미래불자육성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널리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학위는 2022년부터 등록금 없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과 동국건학장학 등 불교장학 제도를 만들어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를 계기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2,000여 명에 육박하게 됐다.

한편 모교는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불교 장학금과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해 학업을 지원하고 청년 불자 양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보문사



보문사 주지
현보스님

(불교대학 승가학과 76卒)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76 Tel. 041-545-6531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만화

(화학과 71학번)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EDIA BLOSSOM
PRODUCTION

+010-8743-2415

andilike@naver.com

mediablossom@kaka.com

‘더 좋은 동국 · 더 나은 미래’ 위해 역동적인 동창회

여자총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12년째 이어가



▲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는 9월23일 모교 로터스홀에서 제12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선발된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 전달



▲ 행정대학원 총동문회(회장 홍종표)는 8월19일 을지로 PJ호텔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 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동림동문회

2024 후기 입학생 장학금 전달



▲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진철스님)는 2024학년도 후기 입학식에서 명상심리상담학과 입학생 보각스님과 지담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ROTC 총동문회

울트라 장학금 1억원 전달



▲ ROTC 총동문회(회장 이충주)는 7월10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학군단 재학생을 지원하는 '울트라 112 장학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화공생물공학과

학과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한국카본 조문수(화공79) 회장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행사에서 기부를 결심, 화공생물공학과 발전을 위해 9월 11일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의학과

후배 위한 장학금 1억원 기부



▲ 으뜸생약 최윤용(한의88) 대표는 10월 15일 한의학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 40주년 기념 7천만원 기부



▲ 호텔관광경영학과는 9월 27일 학과 개설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호텔관광경영학과 총동문회(회장 진태화)와 교수진은 모교에 7천만원을 기부하며 40주년을 자축했다.

사학과 총동문회

교육 환경 개선 2천만원 기부



▲ 사학과 총동문회(회장 양홍석)는 9월24일 모교를 방문해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사학과 동문들이 학과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 여건 향상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지부

오대산 가을 문화탐방으로 단합



▲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 동문들은 10월 9일 가을 문화탐방 일환으로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등을 둘러보고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생명공학과 총동문회

재학생 동문 화합 체육대회 열어



▲ 식품생명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이범주)는 10월 12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재학생과 동문이 단합하는 체육대회를 열고 1961년 국내 최초 개설된 학과로서 명성과 자부심을 공유했다.

연극동아리 동대극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



▲ 연극동아리 동대극회(회장 차진모)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0월 24~27일 선후배가 함으로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공연하며 자축했다.

APP 총동문회

제12회 한마음 추계 체육대회



▲ APP 총동문회 (회장 박규승)는 20기 원우회 주관으로 10월 27일 만해광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고 300여명 동문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며 결속을 다졌다.

85학번 주관 제7회 'Remember 한마당'



제7회 'Remember 한마당' 행사가 9월28일 85학번 주관으로 만해광장에서 펼쳐졌다.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를 통해 동기회가 결성된 79년부터 90학번까지 동문들이 참가해 1부 남산견기와 2부 학번별 노래자랑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관기수인 85학번 송철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학번 간 친목과 교류를 강화해 모교 발전에 중심세대로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85학번 동문들은 행사에 앞서 발전기금 2,000

만원을 전달하며 모교사람에 앞장서는 훈훈한 모습으로 선후배들의 박수를 받았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홈커밍데이

리멤버 행사는 2009년부터 개최한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결성된 학번 동기회가 차례로 주관하면서 학번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79학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90학번 홈커밍데이

이는 직격탄을 맞아 2022년에야 열렸다. 리멤버 행사도 2020년부터 3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2023년부터 재개되었다.

90학번 홈커밍데이는 사전에 행사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추진이 가능했다. 91학번 이후로는 준비 부족과 '입학 30주년 기념'이란 상징성을 잃고 홈커밍데이 행사는 중단된 상태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신규 동문을 발굴하고 차세대 주자로 성장시키는 질적 자산 개선의 창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앞으로 리멤버 행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79학번 주관 제1회 리멤버 등산대회 (2015년)



▲ 80학번 주관 제2회 리멤버 등산대회 (2016년)



▲ 81학번 주관 제3회 리멤버 등산대회 (2017년)



▲ 82학번 주관 제4회 리멤버 등산대회 (2018년)



▲ 83학번 주관 제5회 리멤버 등산대회 (2019년)



▲ 84학번 주관 제6회 리멤버 등산대회 (2023년)

건강과 행복을
향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명사 회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미광선일

(인도철학과 73학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 Tel. 032-577-5108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동국인의 밤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6시
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 (장충동 소재)

참석인원 350명 선착순 마감 (테이블 당 10명)
행사 당일 좌석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행사 내용
 - 1부 : 의식 행사
 - 2부 : 동국인상 시상, 동영상 시청 등
 - 3부 : 만찬,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 참가비 : 10만원
- 접수 및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02-733-0303, 팩스 : 02-733-0306

입금계좌 : 하나은행 231-890041-2680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임명 / 선출 / 취임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 임명



수불스님(명예철학 박사)이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사 사장에 임명됐다. 수불스님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교신문사 사장을 지냈다.

수불스님은 1989년 이래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250회 이상 개설해, 출재가를 막론하고 2만명 이상의 공부인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했다.

이를 통해 간화선이 정확하고, 빠르며,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간화선 대중화'를 실천해 온 대표적인 스님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안국선원 선원장이자 부산불교방송 사장, 계단위원회 계단위원이다.

상생과평화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



송석구(철학58) 前 총장이 사)상생과평화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사)상생과 평화는 유불선을 아우르는 민족종교인 '갱정유도'의 5대 도정을 지낸 해평 선생의 정신 계승, 지식인·지도자 양성, 장학사업 등을 하는 단체이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총장 취임



박기륜(경행75) 동문이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박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교육 역량 및 산학협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명했다.

그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총복지방 경찰청장 및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홍성조(공경78)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9대 수석부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9월 14일부터 2년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교육에 관한 국제협약의 회원기관으로 우리나라 공학교육 분야 인증기관이다.

학계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공학분야, 컴퓨터정보(공)학분야, 공학기술분야의 공학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전문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인증을 제시하고,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공학 전문 인력 배출

을 목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스 문화사회복지재단 신임이사



곽홍규(영문81) 재스리랑카 한국경제인협의회장이 한국-스리랑카문화사회복지재단 신임 이사로 임명됐다.

곽 이사는 졸업 후, 주식회사 효성에서 근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6~20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섬유무역기업인 BNS COLOMBO LTD 대표이사, BNS TEXTILE LRD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또, 스리랑카 한인회 회장,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 스리랑카 한인불교 신도회장, 스리랑카 한인학교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인권위원장



이상훈(경행84)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경찰청 인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한국경찰 학회장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을 역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시민의 권리보호는 경찰의 존재이유이므로, 경찰은 시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한다'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직무 인식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 집행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현존하는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코바코파트너스 대표이사 취임



강태진(불교84) 동문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자회사인 파트너스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강 신임대표는 불교신문사 기자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고문 등을 지냈고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코바코 상임감사를 역임했었다.

부산광역시 신임 대변인 선임



부산광역시 신임 대변인에 박광명(국민윤리86) 전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이 내정됐다.

시는 3급 국장급인 대변인직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박 전 본부장을 대변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박 대변인은 2000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홍보국장, 강원랜드 상무 등을 지냈다.

수상

제10회 전영택문학상 수상



이흥수(국문65) 수필가가 제10회 전영택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수필집 '꽃이 나에게'다.

이 상은 소설가 전영택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 동문은 그동안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2014년 계간 '문파'로 문단 데뷔했다.

2024 콤팩트시티 대상 종합대상



이병선(사학82) 속초시장이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후원한 '2024 콤팩트시티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속초시는 9분 내 이동할 수 있는 반경에서 주거·의료·교육·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시를 고밀(高密) 개발하고, 각각의 '9분 생활권'을 ITS(지능형교통시스템)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다.

2024 오늘의 작가상



허진석(국문83) 시인이 계간 문예지 '한반도문학'이 수여하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허 시인은 1985년 '현대시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타이프라이터의 죽음'으로부터 불법적인 섹스까지(1994년), 'X-레이 필름 속의 어둠'(2001년), '아픈 곳이 모두 기억난다'(2019년)를 상재했고 2020년 제33회 동국문학상, 2023년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은상



서울연극협회 영등포지부 권경하(연영84) 지부장이 이끄는 공연창작소 공간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 서울 대표로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다.

1983년 시작된 대한민국연극제는 국내 연극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축제로, 각 지역 예선에서 입상한 극단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성연(인도철학89) 작가가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구성연 작가는 사물을 바라보는 뛰어난 관찰력과 색다른 관점이 높게 평가되어 제25회 대상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 지역

의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고자 광주신세계가 1996년부터 개최한 공모전이다.

제37회 동국문학상 수상



만해죽전위원회와 동국문학인회가 제37회 동국문학상 수상작으로 박소란(문창00) 동문의 4번째 시집 '수옥(창비)'을 선정

했다. 이번 심사는 2023년 6월15일부터 1년 동안 발간된 모교 출신 문학인들의 작품집 총56권(시집 24, 소설집 18, 수필집 12, 평론집 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집 '수옥'으로 동국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박 시인은 2009년 '문학수첩'으로 등단했다.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 '한 사람의 닫힌 문', '있다', '수옥' 등을 발간했으며, 2015년 신동엽문학상, 2016년 내일의 한국작가상, 2020년 노작문학상, 2022년 동아돌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제16회 허균문학작가상 수상



김희선(대학원) 동문이 강원일보와 (사)교산·난설헌선양회가 주최하고 강릉시가 후원하는 제16회 허균문학작가상 수상자로 선

정됐다.

수상작 '247의 모든 것'은 가상의 바이러스 창궐 상황을 제시하며 지나는 팬데믹 상황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다음 팬데믹의 시대가 온다면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할 거리를 던진다.

김 작가는 춘천 출생으로 강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 국문과를 수료했으며 201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해 짧은작가상, SF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전시회

불교미술협회 올해의 작가 초대전



한국불교미술협회 '2024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양윤정(불교미술01)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초대전이 열렸다.

서울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9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빛으로 가는길' 전시회에서는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길을 그린 '심우도'를 모티브로 삼아, 작가가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신 간

어찌하오리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역사 이야기꾼 김진섭(사학81) 작가가 조선시대를 이해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관문인 《조선왕조실록》중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만나 서로 묻고 답하며 치열하게 논쟁했던 어전회의 현장을 마치 생중계하듯 흥미롭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풀어낸 역사 교양서를 출간했다.

작가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민생과 제도, 법률과 사회, 문화와 풍속 등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실록 속 어전회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조의 흥망을 통찰하고, 역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지성사 / 2만3천원)

흔·잣·말



신심 깊은 불교학자 허남결(국민윤리84) 불교학부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불연(佛緣)의 순간들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 <흔·잣·말>을 펴냈다. 에세이라 하여 일필휘지로 붓 가는 대로 쓰지는 않았다.

저자가 그동안 한땀 한땀 자수와 같이 쓴 칼럼들을 모아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감상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보태어 엮은 것이다.

(모과나무 / 1만9천원)

자치경찰 에세이



박동균(행정86)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대구시 자치경찰의 태동과 역사적인 출발 그리고 시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과 성과를 알기 쉽도록 '자치경찰 에세이' 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자치경찰 에세이' 는 1권과 2권으로 구성됐으며, 총 1,0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저자가 임기 3년간 발표한 자치경찰 칼럼들, 특강과 현장 설명회와 주민 소통 내용, 방송 출연, 저자의 일기와 언론 보도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록한 생생한 대구시 자치경찰의 역사다.

(박영사 / 전권 6만8천원)

사랑이 오로지 사랑이었으므로



정우식(철학88) 시인의 첫번째 시집으로 「사랑하였으므로 사랑하였네라」 「첫사랑 2」 「바람이 불어 사랑에게로 간다」 등 88편이 실려 있다.

청년 만해를 꿈꾸며 불교계에 투신해 조계사 청년회장, 대한불교 청년회장, 조계종 서울특별시 신도회 사무처장,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생명의 강 살리기 불교 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경부운하 저지 국민 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운하 백지화 종교환경회의 상황실장, 시국법회 상황실장, 조계종 쇄신위원 등 20년간 불교의 혁신과 깨달음의 사회화, 환경운동에 매진했다. (파란 / 1만2천원)

은퇴 후 삶, 어떻게 살아야 축복인가



이병국(경대원91) 동문이 은퇴 후 삶을 축복이 되게 하는 행복노후 설계서를 펴냈다. 100세 시대, 인생 후반부 삶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10가지 삶의 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은퇴자로서 기본적인 은퇴 준비 방법 외에도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건강관리, 손주 교육 방법, 은퇴 후 종교가 필요한 이유, 알아야 할 상식 등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며, 읽는 즐거움도 있도록 구성했다. (책과 나무 / 1만6천원)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스님(선학01)이 두 번째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를 출간했다.

쿠무다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엮은 것으로 스님이 직접 고른 명사와 함께 짧은 감상을 덧붙인 글이 수록돼 있다.

수행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 안에서 깨달은 지혜를 담아 1부 '사색하는 아침' 과 2부 '시가 있는 저녁' 으로 구성된 책에서는 부산 송정 바닷가 소박한 2층 카페로 시작해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일궈낸 주석스님이 적지 않은 고통과 실의를 느낄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언어의 힘, 말의 힘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담앤북스 / 1만6천원)

경찰청 동문 인사

승진 / 영전 / 전보 (2024.08.14)

- ▲ 경행 85학번 이호영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 영전)
- ▲ 경행 85학번 모상묘 치안감 (치안감 승진과 전남경찰청장 영전)
- ▲ 경행 87학번 김호승 치안감 (치안감 승진과 경기북부경찰청장 영전)
- ▲ 경행 90학번 엄성규 치안감 (강원경찰청장 영전)
- ▲ 경행 박사과정 김병찬 치안감 (치안감 승진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영전)
- ▲ 경행 84학번 김소년 경무관 (수원남부경찰서장 전보)
- ▲ 경행 90학번 김문영 경무관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전보)
- ▲ 경행 91학번 이관형 경무관 (광주광산경찰서장 전보)
- ▲ 경행 92학번 박재현 경무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전보)
- ▲ 경행 박사 박우현 경무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심의관 전보)
- ▲ 경행 박사 이재영 경무관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전보)
- ▲ 경행 박사 이준형 경무관 (경찰청 국제협력관)
- ▲ 경행 박사 곽순기 경무관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전보)
- ▲ 경행 박사 김광식 경무관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전보)
- ▲ 경행 박사 유윤종 경무관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전보)
- ▲ 경찰사법대학원 경찰학 석사 주진우 경무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전보)

총경 전보 인사 (2024. 08. 26)

- ▲ 전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미영 (경행 84)
- ▲ 전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이을신 (경행 84)
- ▲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김신조 (경행 85)
- ▲ 세종 남부경찰서장 황석현 (경행 85)
-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장 김선섭 (경행 87)
- ▲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웅 (경행 87)
- ▲ 경기 시흥경찰서장 강은석 (경행 88)
- ▲ 경기 군포경찰서장 김평일 (경행 88)
- ▲ 울산경찰청 교통과장 박현규 (경행 88)
- ▲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권용웅 (경행 90)
- ▲ 인천경찰청 수사과장 김정란 (경행 90)
- ▲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장 김현환 (경행 91)
- ▲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석 (경행 91)
- ▲ 서울 강북경찰서장 박삼현 (경행 91)
- ▲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경행 93)
- ▲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강연구 (경행 93)
- ▲ 인도주재관 (2024. 7) 김현수 (경행 93)
- ▲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인사정보관리단) 박승훈 (경행 94)
- ▲ 경찰청 감찰담당관 이창열 (경행 94)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이주만 (경행 96)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양희성 (경행 97)
- ▲ 서울경찰청 제7기동대장 이철희 (경행 97)
-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윤영준 (경행 01)
- ▲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이상엽 (법학과 88)
- ▲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김기범 (행정학과 91)
- ▲ 강원 속초경찰서장 심명섭 (대학원 경찰행정학 박사)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송기청 (경찰사법대학원 석사)
-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김철수 (행대원 공안행정학 석사)
- ▲ 강원경찰청 치안정보과장 최복락 (행대원 공안행정학 석사)

2024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후보자 추천

총동창회는 2024년 한해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후보 자격 : 전 동국인 (교직원 등 포함)
- 추천 방법 : 상임위원 추천, 각급 지부 / 지회 회장 추천 동창회원 5인 이상 공동 추천
- 추천 분야 :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봉사 부문 등)
- 제출 서류 :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공적서
- 추천 마감 : 2024년 11월 12일 (화) 18:00까지



辯護士 / 辯理士
吳 洙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제철소 환경에 특화된 위치 검출기

제품소개

www.pos-tech.co.kr



POSTECH (주)포스텍 대표이사 **이 명 규**
CORPORATION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leee@pos-tech.co.kr

www.ehsp.co.kr



해 성 약 품 (주)
(주) 진 선 메 디 칼
(주) 진 선 팜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회장 안 형 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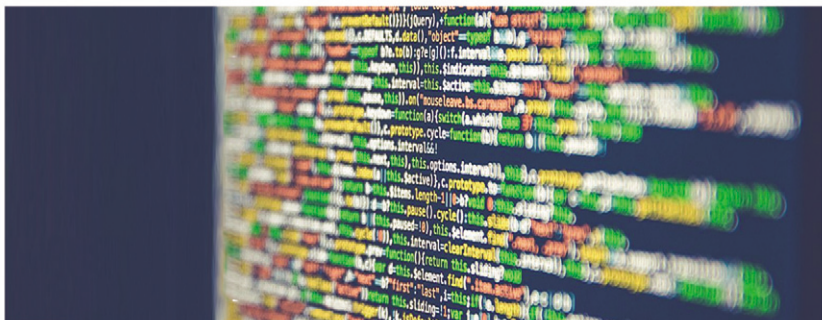
세무법인 **로고스**

代表稅務士 **吳 學 善**
(행정대학원 92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3길 17, 3층 (석촌동)

Tel : 02) 419-3030 Fax : 02) 416-6900
Mobile : 010-6326-5060 E-mail : topohs@hanmail.net

BOMNETWORKS. Co., Ltd.



기업 IT 핵심자산 보안 컨설팅 - 비오엠네트웍스(주)
최상의 정보보안 컨설팅과 정보보안 솔루션으로 고객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대표이사 **조 대 희** (경영학과 04入)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Tel. 02-705-5822 | Fax. 02-6442-0746 | www.bomnetworks.com

GE (주) 글로벌이앤씨
GLOBAL ENVIRONMENT & CULTURE

글로벌이앤씨는 안전함과 편안함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한 공공시설물을 통한 인간중심의 풍요로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벤처인증기업 | 나라장터 등록업체 | 메인비즈 인증기업 | ISO9001 인증기업

대표이사 **박 덕 철**

| 사 무 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힐스테이트과천중앙 101동 1105,6호
| 본사·공장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95-3
Tel. 02-2055-3565 Fax. 02-2055-3566 E-mail. globalenc1@hanmail.net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4년 7월 16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분

금액·성명 가나다 순

발전기금



혜담스님 (불대원)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6,300,000



송석환 (농림경제)
동진기업(주) 회장
4,000,000



한상인 (도시공학)
(주)설미 대표이사
1,300,000



윤병관 (화학)
(주)이지상사 대표이사
1,250,000



공영대 (화학)
前 동국대 교무부총장
1,000,000



김종필 (행정)
내일신문 편집국장
1,000,000



김태현 (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1,000,000



돈관스님 (영어영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1,000,000



이미자 (영문)
복디마켓 대표
1,000,000



전순표 (농학)
(주)세스코 회장
1,000,000



황경환 (교대원)
(주)진양유조선 회장
1,000,000

고문 100만원



권오춘 (영어영문)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



라동영 (불교)
4.19혁명동지회 회장



인종식 (경제)
에스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상철 (경제)
파인글로벌(주) 대표이사

부회장 100만원



김미행 (영문)
여자동창회 사무총장



김석만 (사대원)
SH신한 회장



선일스님 (인도철학)
법명사(부루나포교원) 회주



손기범 (영어영문)
동부허병원 상임고문



이상봉 (산업공학)
상봉요양병원 대표이사



이재창 (경영)
태양트레이 대표이사



차재웅 (행대원)
오봉산추모공원 대표이사



함혜연 (경찰행정)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황규환 (행대원)
관세법인 탐스 대표관세사



황춘익 (불교)
영신상사 대표

● 임원 및 일반회원 후원금 (후원금은 1년에 한번)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일반회원	3만원

지도위원 30만원

- 구자근 (법학)
- 노준식 (정치)
- 류현진 (법학)
- 박만갑 (정치외교)

상임이사 20만원

- 김병권 (세무회계)
- 김용환 (전자공학)
- 김윤목 (행대원)
- 김현권 (경제학과)
- 박정현 (정치외교)
- 배영희 (행대원)
- 서병열 (행대원)
- 성허스님 (불대원)
- 이양례 (경대원)
- 이춘필 (불대원)
- 이택구 (산대원)
- 임수현 (사회)
- 최근수 (산대원)
- 표중섭 (고교미술)

이사 10만원

- 곽노성 (전자)
- 김영린 (법학)
- 김영석 (법학)
- 김태연 (경찰행정)
- 김태웅 (행대원)
- 김학수 (경찰행정)
- 김현진 (대학원)
- 도중철 (법학)
- 명호근 (불대원)

- 문말숙 (APP과정)
- 박석신 (광고)
- 박재구 (식품공학)
- 박진식 (행대원)
- 백운용 (수학교육)
- 송원규 (무역)
- 송철호 (체육교육)
- 신일섭 (행대원)
- 안병국 (건축)
- 양창운 (산업공학)
- 오선호 (영어영문)
- 오원배 (미술)
- 우근식 (경대원)
- 김윤목 (정치외교)
- 윤태섭 (대학원)
- 이관속 (행대원)
- 이문호 (임학)
- 이양구 (불교)
- 이종경 (경영)
- 최홍구 (건축)
- 하한기 (건축)

일반회원 3만원

- 김의사 주지 (경남 산청)
- 관음사 주지 (대구 중구)
- 광덕사 주지 (충남 천안)
- 금강상사 주지 (강원 고성)
- 대원사 주지 (경기 가평)
- 대흥사 주지 (전남 해남)
- 도안사 주지 (노원 상계)
- 동종사 주지 (울산 동구)
- 미타암 주지 (경남 양산)
- 법주사 주지 (충북 보은)
- 봉국사 주지 (성북 정릉)
- 봉국사 주지 (대전 유성구)
- 불락사 주지 (전남 구례)

- 삼화사 주지 (강원 동해)
- 석련사 주지 (충남 홍성)
- 송림사 주지 (전북 익산)
- 쌍계사 주지 (경남 하동)
- 웅주사 주지 (경기 화성)
- 원명스님 주지 (경기 김포)
- 정곡사 주지 (충남 청양)
- 축서사 주지 (경북 봉화)

- 강규영 (임학)
- 강민지 (경대원)
- 강신재 (토목)
- 강효석 (철학)
- 강희중 (응용생물)
- 고희동 (APP과정)
- 곽중영 (경대원)
- 구봉희 (정치외교)
- 구혜순 (APP과정)
- 권혁희 (행대원)
- 권호달 (경대원)
- 김관희 (경대원)
- 김교남 (불교)
- 김교일 (경대원)
- 김금용 (국어국문)
- 김기자 (APP과정)
- 김재재 (국어국문)
- 김봉수 (통계)
- 김상만 (경대원)
- 김상식 (도시행정)
- 김공수 주지 (경기 가평)
- 김승기 (대학원)
- 김승기 (대학원)
- 김영락 (대학원)
- 김영삼 (산업공학)
- 김왕준 (식품공학)
- 김중규 (APP과정)
- 김진동 (경대원)
- 김정택 (국어교육)
- 김중석 (상학)

- 김한진 (상학)
- 김현식 (경대원)
- 김현신 (교대원)
- 김현철 (회계)
- 김희용 (불교)
- 김희용 (무역)
- 무이스님 (사회복지)
- 문동연 (경대원)
- 문말숙 (APP과정)
- 문승국 (회계)
- 문승덕 (행대원)
- 박대순 (경대원)
- 박남부 (불대원)
- 박상규 (영국영화)
- 박성일 (언정원)
- 박영일 (경대원)
- 박용철 (식품공학)
- 박정식 (정치외교)
- 박정민 (불교미술)
- 박정희 (경대원)
- 박정례 (APP과정)
- 박종광 (경대원)
- 박종욱 (정치외교)
- 박종택 (경대원)
- 박천영 (경대원)
- 박해원 (교대원)
- 박 훈 (경대원)
- 박희윤 (회계)
- 박희익 (상학)
- 반공수님 (대학원)
- 신남수 (경대원)
- 신동희 (경대원)
- 신영현 (경대원)
- 신왕준 (국어교육)
- 신종국 (식품공학)
- 신태환 (법학)
- 신해주 (사회교육)
- 심재규 (정치외교)

- 안현모 (산업공)
- 안홍수 (경제)
- 양대성 (경대원)
- 오혜성 (문예원)
- 원명스님 (불교)
- 유정란 (APP과정)
- 윤영일 (경대원)
- 윤영호 (경대원)
- 윤창근 (법학)
- 이광윤 (토목공학)
- 이기순 (국어국문)
- 이동우 (경영)
- 이명희(이태호) (경대원)
- 이문숙 (APP과정)
- 이범식 (통계)
- 이상일 (APP과정)
- 이서운 (영어)
- 이성구 (경대원)
- 이승석 (법학)
- 이양옥 (경대원)
- 이연구 (경대원)
- 이영찬 (농학)
- 이용정 (회계)
- 이유환 (경대원)
- 이인호 (경대원)
- 이재경 (영국영화)
- 이정용 (농학)
- 이정진 (건축공학)
- 이중범 (경대원)
- 이창근 (체육교육)
- 이창희 (농학)
- 이춘우 (농학)
- 이학재 (임학)
- 이향수 (회계)
- 이효영 (APP과정)
- 이희경 (경찰행정)
- 임신용 (APP과정)

- 임현서 (대학원)
- 장석울 (식품공학)
- 장선경 (행정)
- 장세인 (정치외교)
- 장완순 (문예원)
- 장홍순 (법학)
- 전영삼 (토목공학)
- 전영철 (경대원)
- 정순덕 (국어교육)
- 정영두 (경대원)
- 정인석 (경찰행정)
- 정훈재 (사학)
- 조준수 (경대원)
- 조한구 (상학)
- 조혜영 (국어교육)
- 주재욱 (물리)
- 지응중 (건축)
- 차준환 (전자)
- 차현섭 (경대원)
- 최병권 (경대원)
- 최순임 (회계)
- 최원영 (APP과정)
- 최준현 (경영)
- 최중철 (농학)
- 최해영 (경찰행정)
- 허윤진 (세무회계)
- 황영자 (경대원)
- 황주석 (불대원)
- 황필건 (APP과정)

- 누계: 60,000원 (12회차)
- 동명사 매월 2
- 누계: 254만원 (127회차)
- 미하인 0.5
- 김기철 (영어영문) 10
- 김동식 (체육교육) 10
- 오수환 (경제) 10
- 이윤창 (행대원) 10
- 임태진 (경사원) 30
- 홍종표 (행대원) 50

제10회 골프대회

- 전순표 (농학) 100
- 송석환 (농림경제) 300
- 학교법인 이사장 100
- 황경환 (교대원) 100

협찬품

- 윤재웅 총장
- 양평공 (130세트)
- 동국와인 (30병)
- 류완하 WISE총장
- 태블릿PC (1대)
- 이범주 식품공학과 회장
- 화장품 (10세트)
- 전진선 양평군수
- 양평쌀 (150개)
- 오준호 (건축공학)
- 거리축정기 (5개)
- 최윤용 (한의학)
- 경옥고 (10세트)
- 심형석 (법학)
- 타석이용권 (50세트)

- 정동완 (경영)
- 독도모리미막걸리 (90병)
- 이인석(전자)
- 부채 (200개)
- 홍종표 (행대원)
- 골프웨어 (40벌)
- 핑크소금 (150세트)

학부/대학원 입학비

- 서울캠퍼스 -

- 학부 (735명) 1,470
- 일반대학원 (263명) 526
- 영산대학원 (148명) 296
- 경영전문대학원 (46명) 92
- 불교대학원 (28명) 56
- 행정대학원 (48명) 96
- 교육대학원 (47명) 94
- 언론정보대학원 (17명) 34
- 문화예술대학원 (122명) 244
- 국제정보보호대학원 (57명) 114
- 법무대학원 (32명) 64
- 경찰사법대학원 (61명) 122
-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36명) 72
- 미래융합대학원 (13명) 26

- WISE캠퍼스 -

- 학부 (55%) 468.6
- 일반대학원 (28명) 56
- 불교문화대학원 (41명) 82
- 사회과학대학원 (20명) 40
- 경영대학원 (12명) 24

발전기금

김태욱 (기계공학) 매월 0.5



자동차 구입할때 **하나**로 내가 **ONE** 하는대로



하나1Q캐피탈 앱설치



- ※ 1Q캐피탈은 하나캐피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하나캐피탈 공식 홈페이지 (<http://www.hanacapital.co.kr>), 모바일앱(1Q캐피탈)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캐피탈 전용고객센터 1800-1110[운영시간(영업일09:00~18:00)]에 문의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 본 홍보물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준법심의필24-224/브랜드심의필24-213)